

교회 목표

신앙의 예배
천국입문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 유익함이나니라
(벧전 3:18)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장: 이형수

2001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총 93명에게

'세례식은 우리에게 물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구약은 '정결'을 주 앞에서 요구되는 거룩의 근본적인 상징으로 삼는다. 물과 피는 부정한 죄를 씻는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가지 씻는 것' (히 9:10, 례 8:5-6, 14:8-9, 15:5), 특별히 피에 의한 씻음을 상기시킨다' (E.P. Clowney의 '교회' 44쪽).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0:22).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장소이다. 그래서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물과 피가 인간을 정결하게 씻긴다. 그리고 거룩의 옷을 입혀 하나님께 제신 거룩한 보좌 앞으로 데리고 나간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정결하게 씻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이다.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총 93명의 회원이 학습세례를 받는다. 학습 21명(남 11명, 여 10명), 세례 30명(남 16명, 여 14명), 유아세례 31명(남 14명, 여 17명), 그리고 입교 11명(남 2명, 여 9명). 이들은 그 동안 학습세례교부에 참여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왔다. 이들이 학습세례식을 통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확신과 감격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

거기 계신 하나님 (신 4:29)

"게 사십 년 십일 월 그 달 초 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신 1:3). 이스라엘이 거친 광야에서 방황한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나려는 40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행벌의 시간이 점점 끝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러한 행위를 저주가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공의로움과 신실하심에 입각한 단호한 의지였었다. 이제 모세는 거인 땅 앞에는 편 모압 평지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마 유언대로 같은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었다.

"가네스 바나에서 떠나 셋째 시내를 건너가까지 삼십년 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시신 대로 징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신 32:1). 이스라엘의 기나긴 방황은 가네스 바나에서 있었던 정탐꾼들의 보고와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한 불순종 사건 때문이었다. 이 방황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한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고로 내게 진노하시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대로 좇아나 이 요단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돌리거니와 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서 못할 것이나니"(신 3:25-27). 하나님께서는 '신(Shin)' 광야에서 자신의 자리에 따르지 않은 모세조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 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눈앞에 보이자, 그것을 밟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했던 자음이요 마지마 기도제목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호한 태도로 거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지킬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바나에 이르니"(신 4:7).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라신 모든 죄인들을 함께 하셨다. 비록 모세는 거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자기 인생과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셨던 하나님을 선포하였다.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늘 정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진실로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 호렙 산 화평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네가 무슨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는 길의 삼가라. 두렵건대 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만들거니와 너는 아무 세상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아무 세상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거나 하느니라"(신 1:15-18). 모세가 고향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명령하셨을 때, 지금 모세의 형상들을 다스리는 이들은 모두 여호와께 모방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우상을 만들고 말하며 불순종하여서 그 대를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본 사대들이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찬송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찬송히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고신 공능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히 구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라"(행 1:3). 베드로에게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으며, 찬송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에 따른 소망에서 우리나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사도 요한도 찬송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사도 베드로와 동일하였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하니!"(계 5:13).

그리고 신앙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올바르게 제시한 사도 바울 역시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찬송히로다 하나님! 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신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니!"(엡 1:3).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찬송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속 너희의 말라 이는 방방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엡 5:17-19). 그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 생상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 취하지 않은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단호하게 복 받아 냈다.

이러한 찬양의 갱신을 위하여 교회는 '전임찬양지휘자'를 초빙하며 하였다. '충현교회'의 회원이 되어 모든 공배 및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함께 공유하고 전적으로 찬양에 헌신할 이들에게 찬양대의 지휘를 맡기기로 한 것이다. 즉 찬양의 가사는 믿음의 고백이며 찬양의 곡조는 믿음의 진동임을 확신하면서, '음악'과 '믿음'이라는 두 개의 범주 안에서 단호하게 '믿음'을 확신을 두고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찬양대를 세워나갈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찬양대원들은 믿음의 증인들로서 사도들의 신앙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께 제물로 드려지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줄들이요, 모든 달란트를 주께 드리고 오직 주만을 높이는 찬양대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신령한 예배를 위해 초빙한 찬양지휘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금주의 교구 영성훈련 - 1월 30일(월) 13 - 16교구 / 11월 2일(목) 14 - 15교구

로서 모세는 다시금 그들의 부모들이 겪었던 우상숭배의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상!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길이 삼가라'라고 경고하고 있다. 도대체 그들의 부모가 금을하여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었는가? 그것은 듣기는 했으나 보지 못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개선 창조자'를 '가이'로 보아야 믿겠다. 어리석은 피조물의 우도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든 조만 형상 속에 가두려는 인간의 고만함이 발동했기 때문이다(창 32:8).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신 4:29).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새로운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비록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모세는 너희들의 부모들의 실패를 기억하고,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할 것! 대담히 삼가하게 경고하셨다(신 4:25-26).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갱신하고 있다. 잘 기억하라!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고 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라고 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네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했다. 만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 그대 창조자 하나님으로 보아도 의심은 깨닫는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곳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로 인해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진짜 목적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병 나은 것, 사업과 인생의 성공 등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장 심각한 현대의 우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구하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뿐 아니라, 말씀하셨던,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종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삭개도를 기억해보라. 주께서는 절대대로 그를 그대 자라지키 않으셨다. 시라미야 여도드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그 또르른 헛웃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려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본분은 죄인을 만나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인생을 허탄한 우상에 몰려 참된 구원의 길을 걷게 하리라는 진리와 생명의 약속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오직 나에게 기쁨을 내게 그대 부르라. 악인은 그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하면 그대 그 공중에서 거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 날리 용서하시리라"(사 55:6-7).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렘 29: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저희는 잠시 자기게 대해도 우리를 정하게 하였고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히 12:10).

Arise, let us go from here

(John 14:30-31)

*"I will not speak much more with you, for the ruler of the world is coming, and he has nothing in Me;
but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I love the Father,
and as the Father gave Me commandment,
even so I do. Arise, let us go from here."*

In today's Bible verses we hear Jesus' voice say, "Arise, let us go from here." He was speaking to His disciples at the close of their last meal together. At the time, the disciples were enjoying the godly instructions and encouragements Jesus was giving them. Jesus' ending words meant that their special conversation was over. For Jesus, His words signified the start of suffering and His impending death. Even though we may find or experience sweet, happy, or pleasant places, we cannot hold on to them. We have to get up and go because we have not yet arrived at our eternal home. There's no place on this earth that is eternal. Jesus' words resound with the voice of victory. Our Lord asks us to march on because this earth offers no lasting place or truly inviting places. For Him, as well as us, we must move on toward God's glory.

Jesus knew that persecution, suffering, and death awaited Him. Yet He still got up and left His comfortable surroundings. He obeyed His Father's command, "but so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I love the Father, I do exactly as the Father commanded Me. Arise, let us go from here" (v. 31). Jesus willingly followed His Father's way. Even though the whole world would forsake Him, He moved in God's direction. He didn't hide

from persecution or escape from suffering, but proclaimed His Father's will. His desire was to please His Father and bring glory to His name so that all heaven and earth would know God's great love.

Jesus specially told His disciples, "I will not speak much more with you, for the ruler of the world is coming, and he has nothing in Me" (v. 30). Jesus was ready to meet the enemy. He was prepared for the test, "he has nothing in Me". He was a doer of the will of God. Just look at the whole of John 14. You find expressions, "I go, I will come again. I will do it. I pray. Arise, let us go from here." Jesus is doing the will of God. He told His disciples, "I will not speak much more with you". In essence, Jesus was saying that He wasn't going to talk the talk, but He was going to walk the walk. His actions expressed His love. He wanted to achieve our salvation. He couldn't rest till redemption was complete,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Heb. 12:2). Amen!

Like Jesus, we too must get up and go forward. We can't sit and cry over our circumstances. We have to stand and move on (see Ex. 14:15). The call

onward is to encourage believers. We are first called out of this world and into His grace (see 2 Cor. 6:17). From there, we are to live separate from the world and joined to Christ (see Heb. 13:13). We must take our cross and follow Him. Just as Lot and his family were instructed not to look behind them but to move forward in escape for their lives, so, too, we must move forward (see Gn. 19:17). We truly need to forget what lies behind us and reach forward to what lies ahead (see Phil. 3:13). God's presence is before us. We just need to go. Jesus commanded His disciples,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Mk. 16:15).

Paul said,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as a drink offering, and the time of my departure has come" (2 Tim. 4:6). Paul viewed his death as pouring out his life as an offering to God. He just kept going even though death was near. Where are you going my friend? If God calls you immediately, do you know whether you're going or staying? Like Jesus said, "Arise, let us go from here". What a wonderful statement. Jesus went from the Lord's Supper to the garden of Gethsemane. He was dying there. His desire was to go God's way. Let's follow Jesus Christ and remember that our eternal place is in heaven not here. 🙏



김 성권 목사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요 14:30~31)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떠나야 할 이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들을 듣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누는 만찬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신령한 교훈과 격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과의 특별한 대화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들이 고난받 기 시작할 것이며,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때 때로 달콤함과 행복함, 또는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를 발견하거나 경험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볼 줄 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영 원한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에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승리의 음성으로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구 주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요청하십 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구적 이거나 진실한 초청의 장소로 제공할 곳이 없기 때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일어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예수께서는 박해와 고난과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 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별 락 일어나서 인락한 주변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하 늘에 계신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 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 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31절). 예수께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 으셨습니다. 비록 세상 모든 것이 그를 버릴지라도,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을 향하여 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는 박해를 피하거나 고난

을 모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의 아버 지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의지는 하늘과 땅 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사랑을 알게 하고자, 하 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마음으로 불타오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는 특별히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 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 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30절). 예수께서는 원수를 만날 각오를 하였고, 점점 다가오는 시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 니”. 주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 다. 지금 즉시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살펴보십시 오. 여러분은 이러한 표현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기도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 나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예 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질 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의 길에 대 해서 말로 하지 않고, 그 길을 몸소 걷게 될 것을 의 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취하신 행동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의 구원을 성취하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께서는 구속이 완전치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쉬 수 가 없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아멘!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치한 환경을 탓하며 앉아서 울고 있을 수 없

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서야 하며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출14:15 참고). 그러므로 앞을 향하여 나아 가라는 소명은 신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고후6:17). 이 은혜의 장소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 터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됩니다(히 13:13 참고).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 라야 합니다. 못과 그의 가족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라는 지시 를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앞을 향해서만 움직여야 합니다(창 19:17을 보십시오). 우리는 진실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진 것을 향하여 달려갈 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빌 3:13). 하나님의 임재 하심은 우리를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시 일어나 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 라”(막16:15).

주님을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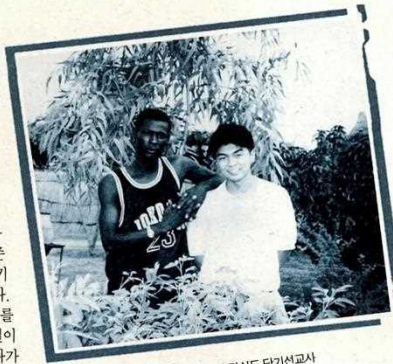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관재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 다”(딤후4:6).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대해서 하나님 께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써 쏟아 붓는 것으로 여겼 습니다. 그는 비록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도 믿음의 담을 줄을 계속하였습니 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장 부르신 다면, 자신이 믿음의 담을 줄을 하고 있는지 또는 주 저앉아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신을 향하여 “일어나라 여기를 떠 나자”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언급 일니까? 예수께서는 만찬의 식탁에서 갓새마네 동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을 가는 것이 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곳은 하늘에 있으며 이 땅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

아프리카 R국 이야기-네

권오섭 (평신도 단기선교사)

오마르는 성경에서 남들이 안 되는 부분은 끊임없이 물어봐 평생도 수없이 해야만 했다. 그래서 내가 그만 하자고 말해야 할 때가 더 많았다. 그리고 내가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모르는 부분을 물어볼 때도 많아 난처해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궁금할 뿐이며 무슬림이라는 것을 강조하곤 했다.

그런데 '암둘라호프'가 올라온 것은 내가 오마르와 계시록을 공부할 즈음이었다. 암둘라호프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잠 잘 곳을 구하고 있었다. 나야 당연히 얼마든지 같이 살 준비가 되어있었다. 그러나 암둘라호프는 '파키르'의 아들 아니겠는가? 돈이 궁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을 곧 구했고 입학 시험준비를 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30여 명에 달하는 대가족 속에서 살다가 혼자 살리니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 쉽지 않았으리라. 거의 매일 집에 놀러갔고 자연스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암둘라호프에게는 다시 기독교의 개념, 예수가 누구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지킨만 볼 수 있었다. 오마르가 아주 자상하고 성실하게 어깨까지 으쓱거리며며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가끔 내가 나서야 할 부분도 있었다. 암둘라호프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오마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에게 눈을 돌렸다.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들은 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듯 했다. 물



오마르와 권오섭 평신도 단기선교사

가 종교경쟁에 끌려갔던 경험이 있던 터라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입이 근질거리도록 참고 있었는데, 이게 웬 췌장인가.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겠다고 앉아 있으니, 물론, 그 모임은 오마르의 강요에 의해 모인 것으로 내가 아무리 독소리 터져라 외쳐봐도 웃음거리밖에 안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뻐했다. 오마르가 성장하고 있다. 그는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선교사와 같이 살기 때문에 경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를 버리고 가족들을 모았던 것이다. 그런 밤은 잠 못 이루고 오마르와 이야기를 나눴다.

세계관 6

신(神)은 있다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 악은 본래적인 존재가 아니다. 악은 악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부터 변형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한다(이것에 대한 논의는 세계관 5편을 보라). 그렇다면 절대 선은 무엇인가? 모든 악한 것들보다 변형된 것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0%의 절대적 기준이다. 그것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형이상학적 탐구이다. 철학은 이것을 밝히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답을 모른다. 라파엘(Raphael)의 그림 '아테네 학당'을 보면 학당들 걸어나오는 두 사람이 보인다. 플라톤(Platon)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손바닥을 펴서 땅을 가리킨다. 철학의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다. 결국 그들 누구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다.

악은 물질이 아니다. 따라서 악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또한 악은 추상적이지 않다. 악은 구체적으로 활동한다. 악은 인격적이며 의지적으로 활동을 한다. 내 안을 보라. 악한 생각, 악한 감정들을 누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가? 누가 악을 비할등적이며 고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악은 의지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악을,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선 또한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선은 악이 변형되기 전의 원형이다. 악이 선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의지적이거나 인격적인 것은 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격적이며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절대선. 당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세상의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가야만 하는 절대적 기준이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라만 알 수가 되지 않는다. 의지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절대적인 존재는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악으로 인해 파멸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존재가 없다면 세상은 벌레 악으로 인해 파멸했을 것이다. 이 존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나. 만약 그런 존재가 물질적인 것이라면(유물론적으로 볼 때) 신이 될 수 없다. 신이란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인간과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 움직이는 존재이다.

경리한다면, 선은 모든 왜곡된 것들의 원형이다. 선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절대적 존재는 신(神)이다. 기독교에서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다음 주에 계속)

(인혁덕 목사)

노방전도의 하루

오혜옥 (집사, 10교구)



지난 10월 수요일, 구역장 훈련을 마치고 우리 10교구 여전도회 전원은 잠원동으로 노방전도를 나갔다. 그 동안 틈틈이 기도하며 준비를 하여왔던 아침부터 날씨가 흐리더니 가랑비까지 내려서 심히 걱정스러웠다.

곳은 날씨라 그런지 주변이 한산하고 조용하여 우리는 건넌 고속터미널로 자리를 옮겼다.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과연 어떤 분을 만나서 심히 기뻐하셨나. '주님, 먼저 그들의 마음 속에 임하게 하소서. 입술로 시인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의지하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였다.

잠시 후 유난히 기운이 없어 보이는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더니 '네' 라고 서슴없이 대답하는 게 아닌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던 중, 큰 수술을 하시고 천안에서 이곳까지 동행치료를 다니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인은 주님 영접을 원하지만 그 동안 제사 문제로 망설이고 있었다고 하면서 당장 결신하는 모습을 보고 이미 주님께에서 예비하신 분이셨음을 알 수 있었다. '주님, 이분을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소서.' 확실한지 언젠가라도 메모하였다.

또 가까이 다른 영혼을 찾아나섰는데, 한분께서 다가오신다.

'집사님! 한때 저의 가장이 평안과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였으나, 바깥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외면한 저 벌써 몇 년째입니다. 지금은 가장이 혼란에 빠지고 힘든 생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주일은 물론 새벽예배를 사모하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소연하며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신다. 알고보니 전에 직분까지 맡으셨던 분이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도 날마다 기도드리고 있다.

실로 어리석고 언약하고 미련한 우리 인간이기에 한 순간도 망설임 수 없음을 체험하게 해 주신 주님이시겠다. 그 동안 몇 번의 농어촌 전도를 다니면서 모든 일에 준비와 행함과 인도하심을 알게하신 주님. 부추한 저희들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전도해야 하는 사명 지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게으른 자의 전도보다는 어떻게 올라야 할까요? 나태하고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전리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보고서를 되도록 모으겠습니다.

감사하고 은혜로우신 주님, 그날 우리의 손잡고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결혼 4년차의 가을

정인옥, 이혜정 부부 (신혼가정부)



가을 빗소리와 함께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면서 평온함을 느낀다. 방송에서는 가정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정'에 대해 결혼 전부터 많은 소망을 품은 터라 방송의 내용이 가슴 속 깊이 와 닿는다.

맡은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남편과 3살 된 귀여운 아들을 둔 이제 결혼 4년차 된 나의 모습은 모든 면에서 매우 안정적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망을 품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힘들어 했고 신앙생활의 만족이 없었다. 지금은 신앙생활 여건이 좋아졌지만 매일매일 집안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잠시 틈도 없었고, 피곤이 누적되어 성경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었다. 주일에 교회로 가도 아이를 쫓아다니느라 갈급한 나의 심령은 채우지 못한 채 되돌아오는 무의미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나는 이러한 생활이 모두 남편의 기도부족이요, 날 도와주지 않은 탓이라 생각하고 매일매일 남편을 보면서 '왜 좀더 내게 잘해 주지 못할까? 왜 좀더 집안 일을 도와주지 않을까? 왜 좀더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까? 왜 좀더... 왜 좀더...?' 이런 불평이 은 마음에 가득하였다. 남편에 대한 답답함과 짜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신혼가정부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남편을 미워했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나로 하여금 가시방석 같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셨다. 결국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것은 나의 죄 때문이요 마리아와 같이 분주한 나의 모습 때문이었던 것이다. 아이가 잠깐 잘 때나 잠시 시간이 날 때면 집안 일하기에 급급하였고, 무를 풀고 기도하기보다는 편하게 쉬기를 원했던 나의 모습이었다. 결국 영적 황폐가 생활의 황폐를 가져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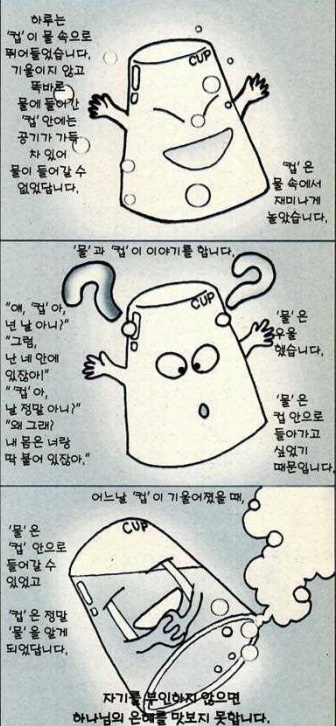
낯선 서울,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충현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나를 무척이나 외롭고 힘들게 하였다. 예전에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이 자꾸만 보고 싶고 함께 교제 나누던 사람들이 그리워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이러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 주위에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혼가정부의 자매들과 구역식구들을 든든하게 붙여주셔서 나의 무너짐을 막고 계셨다. 주일마다 같이 공부하고 교제 나누면서 서로의 이러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힘이 되어주었다.

남편이 처음 교회 생활하면서 형제들과 서로 교제하고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나의 이기심과 성급함이 얼마나 내 눈을 어둡게 하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 나를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눈가리개를 걸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에 최후스러운 마음까지 든다. 한 주일 보지 않았으면 서로 걱정해 주는 신혼가정부 가족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충현교회에 이런 부부가 있는 것을 감사하며 이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혼 전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신실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만평

글·그림·이충원



사랑이 넘치는 신혼가정부

주님의 은혜

정준홍, 박정윤 부부(신혼가정부)

서로 사랑하라

박 소 연 (집사, 신혼가정부 교사)

주은이는 백일 지난 사

랑스러운 우리 딸이다. 주은이의 이름을 풀이하면 주님의 은혜라는 뜻이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라고 남편과 함께 지었다.

주은이를 낳기까지 자녀를 기다린 3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가는 기간이었다. 지금은 그 3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안다. 3년의 세월을 통하여 늘 우리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늘 생명을 주시기를,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결혼기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 남편과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해 생각해 보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다.

하루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주님께 찬양드린다.



결혼한 지 한참이 지

나,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모습들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 원하시는 모습을 성

경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가정의 우선 순위를 알지 못해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을 늦게나마 사과하며 위로해 줄 수 있었고, 성실함과 체념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정말 사랑해 주시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좀더 일찍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서로에게 부끄럼도 덜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가정으로 빨리 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조차 너무나 많이 깨어지고 상처 받는 요즘, 우리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이 각자가 먼저 믿음의 혼수를 준비하며, 믿음의 배를 만나, 서로 돕는 배필로써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 각 가정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기 계시나요?

-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

나는
여기, 이 아래 있어요
당신은
저기, 저 높이 계시요
나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기도를 정녕 들으실 수 있나요?
다만
무슨 말씀으로 나의 기도 삼아야 하는지

사실을 알겠음일까요, 하나님?

나는 할 말을 모르라고...
아는 것은 다만
나는 외롭고

무언가 괴로움에 흔들린다든 것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초초하여
어려움일한 소요뿐이라고!

사람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기도란

마음을 진전케 해주면

가슴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나니

그 정적 속에서

새로이 영는 확신을 찾는 거리고,

사람이는 이 계시어

대답하는 이 계시어

가날뿐 한 마다 또 어떤 기도를

날같이 응답하신다고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 웨슬리

올더스гей트

존 웨슬리는 1703년 새무얼과 수잔나 웨슬리의 19자녀 중에 15번째로 태어났다. 웨슬리의 부모는 청교도의 자손들로서, 신앙의 핵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내적 중거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내적 중거의 체험을 이해 못한 웨슬리는 엄격한 도덕생활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고자 하였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노력했는지 그는 주일 성수, 금주는 물론이고 사람들과 쓸데없이 사귀는 것, 부녀자들과의 노닥거림이나 게으름을 피하려고 하였고 불순한 생각조차 피하려고 몸부림쳤다.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고 모든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기도한 뒤에 행하였다.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에는 무조건 복종하였고 교의 의무는 특별히 충실히 이행하였다.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웨슬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다.

진리는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깨달아졌다. 신앙문제로 오래 고민하던 웨슬리는 우연히 올더스게이트란 거리란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다. 메마른 심정으로 앉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읽는 루터의 로마서 강해의 서문이 들렸다.

"9사 15분쯤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루터의 고백을 들을 때 심령은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이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확신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 정말 내 죄를 없이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후에 작은 그때 심정이다.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다고 인정받음, 하나님께 만든 새 진리를 터득한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완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것이 웨슬리의 평생 설교의 주제였다. 반면에 그는 "올더스게이트의 체험은 내게 믿음만이 능력의 원천임을 가르쳐 주었다. 지난간 50년 동안의 경험은 이것이 사실임을 의심없이 증명해 주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찾고 그의 안에서 발견되는 완전한 의를 얻고 싶어했다. 그것은 자신의 선행으로 얻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였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내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의 본질은 신자의 마음 속에 살아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즉각적이고 의식있는 확신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웨슬리의 신앙 체험이었다. 즉 성경의 내용이 머리 속의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경험되는 신앙이었다. 이로부터 경건한 삶의 힘이 나오게 되었다.

올더스게이트는 그의 삶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던 날이다.

(김기홍의 '천국의 기둥'에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홍 지 창' 형제를 소개합니다

주요스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후배의 인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간다는 생각에 설레이고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게 되어 참 좋았고, 계속 성경공부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정이 잘 조정되어서 교회에 매주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 찬 호' 형제를 소개합니다

대학생이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형제들의 인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전에 잠시 교회에 다닌 적이 있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발견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함으로 믿음이 전교해지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해 선 (대학부 새가족 통신원)

+ 양요일

그는 설로 우리의 죄고를 지고... (이사야 53:4)

1교구 권인숙 권사(여78세) 뇌수종과 다발결절로 위독했으나 많이 호전되어 물리치로 중입니다. 병의 자유와 제력의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5교구 최수영 집사(남55세) 간암으로 지난 22일 동맥색전술 수술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낙담하지 않고 양과 의 출혈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교구 홍동선 성도(남57세) 갑상선암 방사선 치료를 중단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병의 지유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15교구 이만애 성도(여14세) 사방부 소독 경진제에입니다. 3주째 구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이 자유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7교구 전정규 집사(남82세) 대퇴부 골절로 지난 15일 수술하였습니다. 심신의 지침 없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억압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다음주일 전승

268장 온 세상 위하여

하미 벨 알렌과 베리사 벤지민 맥킨지가 1938년에 작사·작곡한 이 찬송가는 복음전파의 감동성을 강조하는 선교찬송이다. 원문을 해설하면

- 1절-사도 바울은 "전파하는 자가 먼저 여객 되리라. 보배를 받기 위하여 얻은 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담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복이여"(롬 10:14,15)라 기록했고, 작사자는 "온 세상 위한 그리스도, 모든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 아들의 소식을 전하는 일 이제 막 시작되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듣지 못한 그들이 주의 말씀 모르고 죽게 버려둘 수는 없네" "주님-온 세상 만민이 구세주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는 전파하리, 기도하리. 깨일 중거하리라."
 - 2절-"온 세상 위한 그리스도, 죄 중에 빠져서 죽어 가는 자들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해야하리라. 그리스도 예수는 그들을 구원하시며 죽었으나 그의 사자를 보내서 사망의 선물을 전함 주게 내세우려 할 수 없네"
 - 3절-"온 세상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선포할 것이요, 주의 소식 가지고 멀리 못 가게되니 나는 어디에서나 말할 중거 하는 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명하게 불러야"
- 이 찬송은 찬송곡"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며 중언이 되리라는 각오로 힘차게 불러야 할 것이다. 특히 후렴의 정 절 뿐 음표와 신통한 음표의 경우에 약 박치고로 감하지는 않지던 정 화하고 그리고 명하게 불러야 한다. (찬양원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용서로 용서...

언뜻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선교지에서 9개월만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 팔을 기쁘로 칭칭 감고 있었다. "병원비를 보충 회사에서 다 대준다니 얼마나 고맙나? 하나님 은혜야, 은혜." 트럭 교통사고인데 팔 하나 다친 것으로 끝났으니 은혜는 은혜다. 병원비를 다 대준다니 그것도 은혜다. 어머니 직장을 잃은 신 것도 설 수 있게 됐으니 역시 은혜다. 그대 모든 것이 은혜다. 하지만 뭐나 이 찢김잡은 "어머니가 잘못 한 거예요? 차도로 갔잖나."

"예수쟁이가 그럴 쓰나. 모범을 보여야지 모범을."

"그럼, 팔장 붙여"

"예수쟁이가 그러면 쓰나."

"그럼...?"

"침당보도도 건넌지, 파란 붙이요."

이것 바라. 순간 내 얼굴엔 간악한 미소가 흘렀다. 어머니가 파란 붙에 붙인 침당보도 건넌 게 트럭이 와서 치웠던 병원비를 끝낼 일이 아니다. 부르는 내 같이만 말 이럴 때 쓰는 거지. 게다가 전지 12주. 법적으로 전지 8주 이상 교공사고를 낸 사람이면 구속조치다. 피해자가 합의를 봐 죄아만 풀려날 수 있다. 어머니의 교공사고는 어쩌면 우리 가정에 횡재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가해자는 만나 보셨어요? 지금 감옥에 있죠?"

"아니..."

"지금 감옥에 없어요? 그럼 리가 없는데, 내가 나간 동안 벌이 바뀌었나? 어머니, 그 사람한테서 우리 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감옥에 안 보내는 조건으로 돈 많이 요구해도 돼요."

"그게..."

"뭘리요?"

이야기긴 측은 이렇다. 그 사람이 분명 잘못도 했고 돈도 받아낼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보아하니 가난한 노동자인 듯 싶었고, 난처해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 붙들자"라는 해 "무슨 말씀 필요, 그냥 용서해"했더라면. 아예, 이런 한탄할 노릇이 있나. 물라도 너무 모르는 어머니. 난 이렇게 한탄했고 어머니 다소 일말하기에 이른다. 이대를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터졌다. 누나가 교공사고를 낸 것이다. 이번엔 반대로 누나가 감옥에 가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어머니 같지 않아서 누날 감옥에 일단 불고 출장하기 시작. 결국 누나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누나는 벌이되기 위해 앉았다. "그 피해자가 우리 어머니 같았더라면, 우리 어머니 같았더라면...". 그대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싶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게 순종하고 용서하게 살고 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안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은혜야 은혜."하고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구나.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지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권요섭 기자)



영터리 전도사의 고민

김성겸 (전도사, 중동2부 부지도)

몇 주전, 평소에 좀 튀는 행동으로 자주 혼나곤 했던 학생 하나와 우연히 마주쳤지만 끝까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그 아이는 그 날이 마지막으로 교회에 오는 날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저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고, 가서 열심히 하라는 등 낙관적인 말들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채웠다. 그러나 사실 내 속에서는 '아차! 하는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왜 진작 그 아이와 더 친해지지 못했을까? 왜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주며, 그의 마음에 신앙이 잘 싹트도록 도움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후회했다. 다른 아이들보다도 특히 그 학생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이 컸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소위 말생을 일으키던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 나이, 그 시절, 그 정도 말생 피우는 아이들은 종종 있다. 혼내 줄 때는 혼내더라도 다른 때는 늘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관심 가져주고 좋아하는 것이 그런 학생들을 많이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의 모습이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말생을 피우는 학생일 것이다. 유학을 떠난다고 전구. 그렇게 뼈들어진 친구도 아닌, 교회에 열심히 나오며 다른 친구들과도 밝게 지내던, 단지 남보다도 판단하는 이유로 충분히 감사와 질책 대상이 될 만한 그 친구. 내가 그런 아이들의 가까운 교사이자 친구였기에 했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말해왔지만, 정작 그런 생각과 말들은 단지 속 민 강경에 불과했다. 그 학생이 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는 이미 마지막 인사만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이었다. 말로만 떠들 줄 알았지 정작 말거친 양을 눈 돌아보지 못했다.

교회의 교육환경 상 사실 내가 우리 부서에 모든 아이들이 다 알 수는 없다. 그렇기에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일보다는 부지도 교육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저런 일들을 하며 부시 일을 돕게 된다. 그러나 솔직히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일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내스가 '전도사' 담과도 생각할 뿐 즉은 한탄도 없다. 정작 내가 전도사라고 유일하게 느끼는 때는 부서 활동이 모두 끝나고 난 후 학생들이 어른이든

하나님

김소영 (중동3부)

우리가 이제까지 저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죄를 묻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버린 적은 많지만
하나님께만 우리 결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만은 우리를 믿습니다.

종용히 개인적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 신앙의 고민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 권면하며 함께 기도하는 순간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때야말로 내가 정말 양들을 만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양을 만나는 순간이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양도 몇몇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난 반을 맡은 일반 교사들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난 내 스스로를 '날라리 전도사' 내지는 '영터리 전도사'라고 부른다.

난 유학 떠난다는 그 학생을 만난 이후 내 지금까지 있어 왔던 영혼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영혼들을 만나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았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신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 과분하다. 솔직히 몇 안 되는 양들을 돌보게 되더라도, 내게 맡겨진 그 몇몇 영혼들을 위해 치열하게 살며, 그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성결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감히 이러한 고민을 왜 교회의 모든 교사들과 나누고 싶다. 왜냐하면 이러한 욕망에 대한 고민은 단지 교역자들만의 것이 아닌, 복음을 들고 사람을 가르치며 양육하며 섬기는 모든 교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생

요엘(Joel)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또한 요엘서를 읽으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교훈'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을 말하며, 실제적으로는 유다를 공격하는 이방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연관된 이 예루살렘 재앙은 세 가지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이며, 마지막까지 그 심판은 예루살렘이 패배하고 밭을 파고내고 사막으로 만드는 것처럼 매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악에 대한 위협과 그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스러운지를 경고하면서 '예루살렘의 재앙'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 비유적인 경고는 예루살렘 때 그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는 백성들로서는 분명하게 가슴에 와 닿는 하나님의 경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를 읽으실 때, '예루살렘 재앙'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요엘의 예언은 단계적으로는 유다가 아람에게 공격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함으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벌어지는 모든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서를 읽으면서 '여호와의 더럽고 멀리하는 날', '예루살렘 재앙'과 같은 심판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회개'와 '구원'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하겠다는 경고는 자기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심판에 대한 경고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접근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분노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히 12:6). 그래서 모든 성경은 회개에 대해 말하고 난 뒤, 언제나 용서와 구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결정하셨을 때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 '예루살렘 때'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지만, 그 모든 공포를 단숨에 소멸시켜 버리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고백도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읽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골 2:22).

(김동환 목사출판국 지도)

Technism

6. 설리에 관하여

(1) 설리의 특성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설리에 의하여 가장 중대한 것으로부터 가장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로로우시고 선하심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말의 타락과 인류의 모든 죄와 설리에 천사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설리의 권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써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심을 죄를 만드시고 나하시고 조장하시도 있습니다.

물음 1. 하나님이 만물을 보전하시고 설리하시는 방법 중 일차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돌리시며 설리하십니다(히 1:3).

물음 2.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설리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참한 마르도 하나님이 어럭지 앉으시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설리에 들지 아니하는 것은 없습니다(마 10:29-30).

물음 3.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엘을 애용해 보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나를 멀리 보낸 자는 당실함이 어니요 하나님이라"라고 하였습다.

(2) 설리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원히 아니하는 자들을 말하여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어 그 일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친히 일제하시며 설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 자기의 책성들에게 전도하시거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 겸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범죄의 기회가 주어지고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들을 더욱 성결하게 하십니다.

물음 1. 하나님께서 죄를 돌리시지 않으시고 복인하시 때에 무엇을 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시대에는 무지로 인한 죄를 돌리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을 영하여 회개하게 하셨습니다(행 14:16:17:30).

물음 2. 아담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영장 받게 된 유무는 무엇으로 다시 그에게 전도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하스가 아담이 마음에 고함하여 그 방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대하 32:25).

물음 3.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며, 그 중 정병이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해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고후 12:7-9).

(오종진 전도사-고동부부지도)

